

【토론문 2】

徐市過此說 토론문

고 창 석*

이 글은 지난 4월 26일과 27일 양일 간에 걸쳐서 서귀포 KAL 호텔에서 열린 徐福國際學術大會 때 토론자료로 작성했던 것이다.

○ 三神山은 존재하는가?

예로부터 제주도를 瀛洲, 혹은 東瀛洲라고도 불렀다. 이것은 금강산을 蓬萊山, 지리산을 方丈山, 한라산을 瀛洲山이라 하여, 금강산·지리산·한라산을 중국의 三神山에 비유한 데서 연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금강·지리·한라 세 산은 중국에서 말하는 삼신산은 아닌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말하는 삼신산은 神仙思想을 수반한 중국의 삼신산의 명칭이 전래되어 민간 신앙과 巫俗 등에 깊이 침투함으로써 追想적으로, 혹은 고유명사로 쓰이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 중국의 삼신산은 어떤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전해오는 徐市過此, 또는 徐市過之에 관한 이야기는 어떻게 연유된 것일까? 《列子》에 의하면, 渤海의 동쪽 수억만 리 저쪽에 五神山이 있는데, 그 높이는 각각 3만리, 금과 옥으로 된 樓閣이 늘어서 있고, 珠玉으로 된 나무가 우거져 있으며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不老不死한다고 한다. 그곳에 사는 사

* 제주대 사학과 교수

람은 모두 仙人들로서 하늘을 날아다니며 살아간다. 오신산은 본시 큰 거북의 등에 업혀 있었으나 뒤에 두 산은 흘러가 버리고 삼신산만 남았다고 한다. 더욱이 이 삼신산과 관련하여 《史記》封禪書¹⁾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齊나라의> 威王·宣王, 燕나라의 昭王 때부터 사람을 시켜 바다로 나아가 봉래·방장·영주의 삼신산을 찾게 하였다. 이 삼신산은 전하여 내려오는 말로는 발해 가운데에 있는데, 그렇게 먼 곳이 아니어서 금방 도달할 것이라고 여겼지만, 배가 바람에 불려 번번이 떠내려가 버리는 게 탈이었다. 아마도 지난날에는 도달했던 사람이 있었던 모양으로, 거기에는 여러 神仙들이 살며, 不死藥도 있으며, 거기에 있는 것이라면 새나 짐승까지도 모두 백색이며, 황금이나 白銀으로 궁궐을 지었다고 한다.

거기까지 가지 아니하고 멀리서 바라보면 구름같이 보이니,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삼신산은 도리어 물밑에 있는데, 이것을 보고 있노라면 배는 문득 바람에 밀려 멀어지기 때문에 끝내 아무도 도달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런 소문 때문에 세상의 군주들 치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秦나라 始皇帝가 천하를 통일한 뒤에 해안 지방에 이르자, 수많은 方士들이 삼신산에 대하여 앞을 다투어 말하였다. 시황제는 자신이 직접 바다로 나아가도 그곳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을 시켜 童男·童女를 거느리고 바다로 나아가 삼신산을 찾게 하였다. 많은 배들이 해상에서 서로 만나 모두 바람을 핑계대기로 약속하고 돌아와, ‘비록 도착하지는 못하였지만 멀리서 바라보았다.’고 보고하였다.”

이것은 결국 발해만 연안에 흔히 나타나는 蜃氣樓 형상을 보고 난 뒤의

1) 封禪書는 封禪에 관한 것을 기록한 글로, 봉선은 天地에 대한 제사를 말한다. 즉, 天命을 받은 帝王이 泰山(山東省 泰安市)에 올라 제단을 쌓고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을 封이라 하고, 禪은 태산 기슭의 梁父山에서 땅을 정결하게 하고 山川에 제사 지내는 것을 말한다. 역사적 사실로 확실한 예는 秦나라 시황제가 태산·양보산에서 봉선한 것이 처음이다(B.C. 219).

상상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 해안의 산들을 제사지내는 무당들은 봉래·방장·영주라고 하는 삼신산의 존재를 믿었었다. 또 그와 같은 신앙이 五行說, 또는 九州說과 결부되어 신선 사상의 바탕을 이루게 된 것이다. BC 3세기 전국시대 말 때, 발해 연안의 제왕 가운데 삼신산을 찾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秦始皇은 가장 神仙說에 열을 올려 자주 삼신산을 탐험시켰다고 한다. 《史記》秦始皇本紀 시황제 28년(219 B.C.)조에,

“齊나라 사람 徐市 등이 글을 올려 말하기를, ‘바다 가운데 세 개의 神山이 있는데, 이름을 봉래산·방장산·영주산이라고 하며, 거기에는 신선이 살고 있습니다. 齋戒하고 동남·동녀와 함께 신선을 찾으려 하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자, 이에 서불을 파견하여 동남·동녀 수천 명을 거느리고 바다로 나아가 신선을 찾게 하였다.”

는 것이 그 한 예이다. 徐市의 생몰년은 미상이다. 지금의 산동성에 있었던 齊나라 출신으로, 字는 君房이라고 하였다. ‘市(불)’은 ‘芾(불)’과 같고 徐福으로도 썼는데, 이에 대해 후대의 明나라 何孟春은 《史記考證》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徐市은 또 徐福으로도 썼다. 두 개의 이름이 있는 것은 아니다. ‘市(불)’은 곧 옛날의 ‘𡇗(불)’자로, 漢나라 때에 翻切이 없어서 단지 음이 서로 가까운 글자인 市(불)자로 그 아래에 注를 달았는데, 뒤에 사람들이 불(市)을 읽어 서 市塵의 市자로 썼다. 그래서 福을 別字로 의심한 것이다.”²⁾

어떻든 방사 서불 등이 바다로 나아가 神藥을 찾았으나, 수년이 지나도록 성공하지 못하고 비용만을 많이 쓰게 되자, 서불은 문책 받을 것이 두려워서, 몇 년 뒤에 다시 시황제 앞에 나타나 다음과 같은 거짓말을 꾸며

2) 徐市又作徐福 非有兩名 市乃古𡇗字 漢時未有翻切 但以聲相近字 注其下 後人讀市作市塵之市 故疑福爲別字

됐다.

“봉래 섬의 신약은 얻을 수 있으나, 항상 큰 상어[鮫魚] 같은 물고기가 방해하여 그 곳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활 잘 쏘는 사람과 같이 가서 그것이 나타나면 활을 연발로 쏘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봉래는 건너갈 수 있는 섬임을 분명히 확인하고 돌아왔으나 도중에 큰 상어가 있어서 곤란을 받을 것이니, 이번에는 뛰어난 명궁(名弓)을 데리고 가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시황제는 서불의 영터리 말을 듣고 다시 그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신선의 꿈을 버리지 못한 것이다. 이리하여 서불은 장생불사의 靈藥을 찾아 바다 끝 神山으로 떠났다.

그런데 서불 전설은 후세로 오면서 점차 변질되었다. 즉, 六朝末, 唐代에는 蓬萊가 일본이라고 하여, 일본에서는 서불 등이 탄 배가 紀伊國 熊野浦에 도착하였지만, 서불은 불사약을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후환이 두려워서 귀국하지 않고, 그대로 熊野에 머물러 살면서 토지를 개간하고 동남·동녀를 양육하여 그 지역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결국 그는 이후 중국에는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고 한다. 그의 무덤과 사당도 和歌山縣 新宮市 남쪽에 있다고 믿었었다. 또 《和漢合運》에는 이것을 孝靈天皇 72년(442)의 일로 기록하였고, 지방의 典籍·口碑에 많은 전설이 남아 있으나 원래 믿을 만한 것이 못된다는 지적도 있다.³⁾

○ 賈州는 지금의 어디인가?

《三國志》 吳書 孫權傳의 黃龍 2년(230) 정월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장군 衛溫과 諸葛直을 파견하여 무장한 병사 1만 명을 거느리고 바다를 건

3) 大島利一: 「徐福」 『アジア歴史事典』 4, 平凡社 1959. 453쪽

너 夷州와 賣州를 정벌하도록 하였다. 단주는 바다 가운데에 있다. 노인들이 전하는 말로는, ‘진나라 시황제가 방사 徐福을 보내어 어린 소년과 소녀 수천 명을 데리고 바다로 들어가 蓬萊의 神仙과 仙藥을 구하도록 하였는데, 이 州에 이르러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 자손이 대대로 이어져 오늘날 수만 戶가 되었고, 그 땅[賣州]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會稽로 와서 베 [布]를 샀고, 회계 東縣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다가 또 태풍을 만나 단주까지 표류해 오기도 하였다. 그 곳은 매우 먼 곳에 위치하였으므로, 衛溫 등은 결국에는 도달할 수 없었다. 단지 夷州의 수천 명만을 데리고 돌아왔다.”

이에 대해 南朝 때의 宋나라(420~479) 范曄이 쓴 《後漢書》에도 《三國志》의 내용을 축약하여 東夷傳 倭條의 말미에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회계 땅 바다 밖에는 東鯤人이 살고 있는데, 나누어서 20여 국이 된다고 한다. 또 夷州와 澶洲라는 곳이 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진시황이 방사 서복을 보내어 동남·동녀 수천 명을 거느리고 바다로 들어가 봉래의 신선을 찾게 하였으나 서복은 찾지 못하자 誅殺될 것이 두려워 감히 진나라로 돌아가지 못하고 마침내 이곳에 이르렀는데, 대대로 서로 계승해 내려와 수만 호나 되었으며, 사람들은 때로 회계에 이르러 장사를 하였다. 회계 東冶縣 사람들도 바다에 나갔다가 바람을 만나 표류하여 澶洲에 이른 자가 있었는데, 워낙 멀어서 왕래할 수가 없었다.”⁴⁾

위 두 기록을 비교해 보면, 《三國志》의 夷州와 賣州가 《後漢書》에서는 夷洲와 澶洲로 표기되었고, 會稽의 東縣이 회계의 東冶縣으로 바뀌었다. 後漢으로부터 三國에 걸쳐서 東冶 지방에는 侯官縣이 설치되었지만 동양현의 명칭은 없었으므로 《三國志》 吳書의 기록이 바른 것으로 생각

4) 會稽海外有東鯤人 分爲二十餘國 又有夷洲及澶洲 傳言秦始皇遣方士徐福 將童男女數千人入海 求蓬萊神仙不得 徐福畏誅不敢還 遂至此洲 世世相承 有數萬家 人民時至會稽市 會稽東冶縣人有入海行遭風 流移至澶洲者 所在絕遠 不可往來

된다. 더욱이 후자의 기록이 《後漢書》 東夷傳 倭條 말미에 수록된 것으로 보아 단주를 일본으로 간주했던 것 같다. 또한 《三國志》에는 서북의 移住를 단주에 국한하고 있지만 《後漢書》에서는 이주와 단주 두 곳에 이주한 것 같이 기술하고 있다. 단주는 대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나 그 주민이 회계의 시장에 오는 일이 있으며, 거꾸로 회계의 東治縣 사람이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나 단주에 표류했다고도 한다. 그러나 기록에 나오는 夷州와 亶州가 지금의 어느 곳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선불리 답하기가 어렵다. 과거 이곳을 일본으로 보는 견해가 있었다.

五代 後周 때의 開元寺 高僧이었던 義楚의 《義楚六帖》 권21 城廓 日本條⁵⁾에,

“일본국은 또 倭國이라고도 하는데, 동해 가운데에 있다. 秦나라 때에 徐福이 동남·동녀 각 5백 명을 거느리고 이 나라에 머물렀다. 동북 1천여 리 되는 곳에 富士라는 산이 있는데, 蓬萊山이라고도 한다. 산은 험하여 세 방향이 바다에 면하였고 정상엔 불이 타고 있다. 徐市은 여기에 머물렀고 그 땅을 봉래라고 불렀다. 그의 자손은 지금은 모두 秦氏라 하고 있다.”⁶⁾

고 하였다. 이 내용은 중국의 古文獻 중에서 서북이 일본에 도착하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가장 오랜 기록이다. 그리고 宋나라 때 歐陽脩가 쓴 日本刀歌에는,

昆夷道遠不復通 昆夷는 길이 멀어 다시 통교하지 않는데,
世傳切玉誰能窮 세상에 切玉刀가 전하니 누구나 다할 수 없네.
寶刀近出日本國 寶刀는 가까운 일본국에서 나오니,

5) 24권, (오대 송초 고승), 송 의초 찬, 儒家가 佛家를 오해한 것을 개탄하여 白樂天的의 육첩에 擬해서 불교의 의리·문장·庶事·群品을 類集한 것.

6) 日本國亦名倭國 在東海中 秦時徐福將五百童男 五百童女 止于此國 今人物一如長安 (중략) 又東北千餘里有山名富士 亦名蓬萊 (중략) 徐福至此 謂蓬萊 至今子孫皆曰秦氏

越賈得之滄海東 越의 상인은 바다 동쪽에서 얻는다네.
魚皮裝貼香木鞘 魚皮로 향기롭게 칼집을 장식해 꾸미니,
黃白閒雜鏹如銅 黃白色이 간간이 섞여 낫쇠가 구리와 같다.
百金傳入好事手 百金이 일 벌이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들어가면,
佩服可以攘妖凶 몸에 차고 요사스런 흉물을 물리칠 수 있네.
傳聞其國居大島 전해 듣건대 그 나라가 大島에 있는데,
土壤沃饒風俗好 토양이 기름지고 풍속도 좋다네.
其先徐福詐欺民 그에 앞서 서복이 백성을 속였는데,
採藥淹留卅童老 仙藥 캐느라 오래 머물러 동남·동녀 늙었다네.
百工五種與之居 온갖 匠人과 오곡의 종자를 주어 살게 했으니,
至今器玩皆精巧 지금까지 器玩이 모두 정교하였네.
前朝貢獻屢往來 前朝 때에 貢獻길로 여러 차례 왕래할 때,
士人往往工詞藻 선비들 가끔은 문장에도 공교했네.
徐福行時書未焚 徐福이 갈 때에는 書冊을 불사르기 전이어서,
逸書百篇今尚存 남은 서적 일백여 권 지금까지 보존되었네.
令嚴不許傳中國 중국에 전해 주지 말라는 법령이 엄해,
舉世無人識古文 옛글을 아는 사람 온 세상에 없었구나.
先王大典藏夷貊 先王의 典籍들이 夷貊에 간수되었지만,
蒼波浩蕩無通津 푸른 바다 크고 넓어 통할 길 바이 없네.
令人感激坐流涕 감격한 마음에 눈물만 흐르는데,
鏹澀短刀何足云 녹슨 짧은 칼 말해서 무엇하리.

이라 하였다. 이 일본도가의 가사는 일설에는 같은 송나라 출신인 司馬光의 작이라고도 한다. 우리 나라에는 인조 때 좌의정을 지낸 張維의 《谿谷漫筆》에 그 일부가 소개되어 있다. 일본은 큰 섬으로 토양이 비옥하고 풍속도 좋다고 한다. 옛날 서복이 선약을 캐러간다고 이 나라에 건너 갔는데 그 때 온갖 기술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나라의 기술공예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서복은 시황제의 焚書 이전에 바다를 건너기 때문에 중국에는 없는 서적이 일본에는 많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서북의 이주는 일본과 결부되게 되었지만 다시 一轉하여 이주·단주를 일본으로 간주하기에까지 이르렀다. 이는 明나라 太祖의 《御製文集》⁷⁾이나 陳仁錫의 《皇明世法錄》⁸⁾ 등의 설에 기초한 것이지만 결국에는 《本朝通鑑》 권1 神后紀⁹⁾ 등 일본 역사에도 분명히 기록된 것이다.

○ 亶州(澶洲)에 대한 諸見解

어떻든 서북은 亶州에 머물러 살면서 돌아오지 않았는데, 뒤에 그 곳의 호수가 萬家나 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단주는 과연 어느 곳을 가리키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과거 일본인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연구한 바가 있으므로 그 내용을 여기에 인용해 볼까 한다.

이찌무라 산지로(市村瓚次郎)는 이 단주를 瓊州島, 즉 지금의 海南島로 비정하였다. “그 이유는 吳書 孫權傳에, 장군을 파견하여 정벌하게 한 夷州와 亶州를 同書 陸遜傳과 全琮傳에는 珠崖와 夷州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기사는 모두 동일 사건을 가리키는 것임에 틀림없으므로, 단주는 주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당(唐)나라 때에 주에 儋州를 두었는데, ‘儋’과 ‘亶’은 同音이므로, 이 점으로 보아도 단주는 주에이고, 지금의 경주도가 아니면 안된다.”¹⁰⁾고 하였다.

이에 대해, 시라도리 구라끼찌(白鳥庫吉)는 세 가지 점을 들어 이 학설을 반박하고 있다. “첫째, 중국 삼국시대의 단주는 회계 동쪽에 위치하는

7) 《御製文集》 권16 禮部問日本國王에 「若夫叛服不常 構隙中國 則必受兵如吳大帝·陳慕容廆·元世祖 皆遣兵往伐 俘獲男女以歸 千數百年間 往事可鑒 王其審之」라 하였다.

8) 《皇明世法錄》 권76 日本考에 「先時秦遣徐福 將童男童女數千 入海求蓬萊仙人 不得 懼誅止夷亶二洲 稱秦王 國號倭」라 하였다.

9) 「庚戌三十年 吳王孫權 使其將軍衛溫·諸葛直等 率甲士萬人 浮海侵我西鄙不克 士卒疾疫 死者十八九 經歲而去 溫等以無功被誅」

10) 市村瓚次郎: 「唐以前の福建及び臺灣に就いて」 『東洋學報』, 8-1, 1918.

大海 중의 島嶼였다. 그러기 때문에 서불 移住의 전설이 이 섬에 附會된 것이다. 그런데 주에는 회계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漢나라 때부터 이 섬을 南島라고 불렀다. 둘째는, 단주는 회계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바다 가운데에 있고, 漢人으로서 일찍이 이 섬에 살았던 사람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경주도에는 前漢 때에 이미 儋耳·珠崖 두 郡을 두었을 정도로 漢나라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곳이었다. 셋째는, 담주의 ‘儋’의 음은 tam이고 단주의 ‘亶’은 tan이므로, 이 두 곳은 음성상으로 보아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상의 여러 이유로 亶州를 儋州(경주도)로 간주할 수 없다.”¹¹⁾고 하였다.

또 후지따 도요하찌(藤田豊八)가 “단주는 한반도 남쪽의 바다 가운데에 있는 제주도의 古稱인 耽夫羅(夫는 浮로도 썼다)일 것”¹²⁾이라고 한 데 대해서도, 시라도리는 단주의 ‘亶’이 탐부라의 ‘耽’과 음성이 서로 비슷한 데서 나온 說일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제주도는 중국의 삼국시대에는 州 胡란 이름으로 중국인들에게 알려졌다. 더욱이 당시 이 섬사람들은 언어와 습속이 韓人과는 전혀 다른 인종으로 묘사되었다고 하였다. 탐부라는 《隋書》 東夷傳 백제조에는 耽牟羅, 《唐書》 동이전에는 儋羅라 하였다. 탐부라의 夫羅, 담모라의 牟羅는 《三國史記》 신라본기 지명 말미에 보이는 伐·火(모두 ‘불’로 읽는다), 백제본기의 夫里와 同語로 縣이나 城을 말하는 韓語였다. 그렇다면 탐부라란 이름은 이 섬이 백제국의 속령이 되었던 데서 얻어진 명칭이고, 중국의 삼국시대에는 주호란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다. 또 ‘耽’의 음은 tam, ‘亶’의 음은 tan이므로, 음성상으로 보아도 亶州를 耽夫羅로 비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단주의 명칭이 多彌와 비슷하다고 하여 오늘날 琉球列島 중의 種子島로 비정하였다.

○ 徐市過之의 實體

그런데 《韓窓黎集》 送鄭上書序에는

11) 白鳥庫吉 : 『『隋書』の流求國の言語に就いて』 『民族學研究』 1-4, 1935.

12) 藤田豊八 : 『東亞交渉史の研究』 1932.

“<당(唐)나라> 해외의 여러 나라로서 耽浮羅[耽羅?]·流求[臺灣?]·毛人·夷賣之州(夷州와 賣州)·林邑[참파]·扶南[暹羅]·眞臘[캄보디아]·于陀利와 같은 부류가 동남 천지에 만으로 헤아리게 되는데, <그들은> 혹 때로 바람과 조류를 기다려 조공하고 蠻胡나 상인의 배는 바다 위에 서로 넘나드니 외국의 물화가 날로 들어와 구슬·향료·상아·서각·대모 등 기이한 물건이 중국에 넘쳐 이루 다 쓰지 못할 정도이다.”

라고 하여, 당시 동아시아의 많은 섬들을 나열하고 있다. 특히 섬들 중에 耽浮羅와 夷賣之州(夷州와 賣州)가 함께 나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耽浮羅와 賣州는 동일 지역이 아니란 것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耽浮羅는 耽羅 즉, 제주도로 비정되어 왔다. 또한 서불과지 혹은 서불과차설에 대해서는 서불 일행이 황해를 건너 처음 도착한 곳은 경남 남해군 이동면 良阿里이고, 여기서 다시 바다를 건너 조천포에 도착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한라산에 올라 신선의 열매를 채집한 뒤, 서귀포를 거쳐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것이다. 과연 서불이 한라산에 올라 不老草를 캐었는지 어떤 지는 알 수 없으나 서귀포 정방폭포의 암벽에 ‘徐驥過此 또는 徐市過之’라는 4자가 새겨져 있다고 전해 왔다. 즉, 《心齋集》에 의하면,

“서귀포 연변에 가파른 암벽이 있는데, 수천 길[仞]이 될 뿐 아니라 아래로는 바다에 임해서 험한 파도가 세차게 일어난다. 세상에 전하기로는, 암벽의 중간쯤에 秦나라의 方士 徐市이 새긴 글자의 흔적이 있었다고 한다. 전 날에 白樂淵 목사가 巡行하며 이곳에 이르렀는데, 어떤 사람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자, 마침내 명을 내려, 벽 위로부터 긴 밧줄을 내리고 한 사람이 타고 내려가 그 글자의 자취를 베끼고 올라왔다. 대체로 字體는 科斗文字와 같이 새긴 것이 모두 12개 글자인데, 해독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¹³⁾

이라 하였다. 그러나 최근 이 ‘서불과차’ 내지 ‘서불과지’라는 글자를 본 사

13) 西歸浦沿邊有峭壁 不啻數千仞 下臨滄海 鯨濤洶湧 世傳 壁半有秦方士徐市[市の 착오]所刻字痕云 先是牧使白樂淵巡行到此 人以此說告之 遂命白壁上 以長繩繼一人下垂 引之摸其字跡而還 蓋字體如科斗雕蟲者 凡十二個字 而不可解得云

람은 아무도 없다. 또한 일찍이 丁鶴喬는 己酉作 題辭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진시황 28년에 방사인 서불 등이 동남·동녀와 함께 바다로 들어가 삼신산의 불사약을 찾았다. 조선국 탐라도를 지나면서 석벽에 徐市過此라고 새겼다. 서불이 이곳을 지나갔다고 하는 이 네 글자는 수천 년에 이르는 우리나라 고적 중에 이에 미칠만한 것은 없다. 찾아가서 탐문한 사람은 감상하여 전할 방법이 없었다. 신령스러운 물건이 드러나고 감추어짐은 스스로 그럴만한 때가 있다. 金추사 선생이 오래도록 해도에 머물면서 탁본하고 거뒀다. 유포하니, 이 물건 역시 그 중 한 장의 종이다. 이로부터 옛 것을 좋아하는 선비가 흥미를 돋구는데 하나의 자료가 되었다.”

그러나 위의 사실은 믿을 수가 없다. 더욱이 김정희의 《阮堂集》에는 제주에 관한 글이 적잖이 수록되어 있으나 서복과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찾을 수가 없다. 김정희가 탁본했다는 서복과차(지)라는 글자도 南海 錦山 巖刻畫文과 너무도 흡사하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徐市 문제를 신중히 다루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